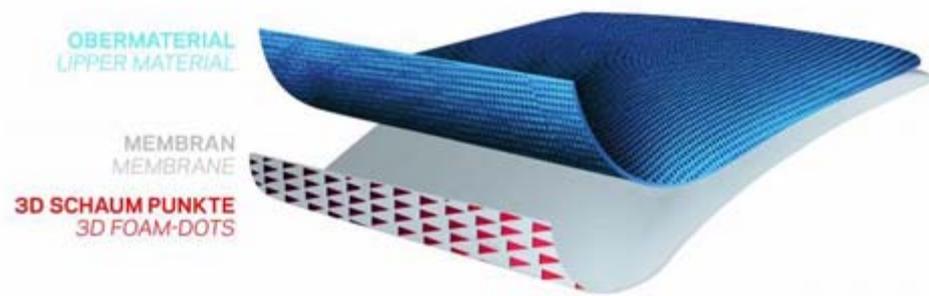


심파텍스(Sympatex), 아웃도어에 3D 의류기술 적용

심파텍스는 아웃도어 스포츠 분야에서 수분 이동과 쾌적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신규 아웃도어용 의류소재를 발표하였다.

이 소재는 3D 의류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독일 Friedrichshafen 에서 열린 아웃도어 전시회(2013.7.11 ~ 14)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이 소재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품으로, 착용자의 의복내 기후를 지능적으로 조절한다.



이 소재는 2.5겹으로 이루어졌으며, 내부의 3차원 라미네이트 층은 도트 포인트 형태로 피부와 접촉되므로, 운동후 휴식시, 피부와 박막 사이에서 형성되는 공기층으로 인해 단열기능을 나타내며, 우수한 내마모성을 갖는다.

또한, 피부에서 발생된 땀과 같은 수분은 친수성 심파텍스 멤브레인 층으로 흡수되어 팽윤되고, 도트 포인트는 사라지게 되면서 라미네이트 층은 피부에 다시 접촉하게 된다. 이러한 반복 과정은 심파텍스 멤브레인은 수분의 이동을 가속시킨다.

이 소재는 2겹의 소재를 사용한 것처럼 경량성을 나타내며, 제조시 용매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 소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심파텍스 멤브레인은 100%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bluesign 및 Ókotex 표준인증을 받은 PTFE-free 및 PFC-free 제품이다.

♣ <http://www.technicaltextile.net> (July 04, 2013 (Germany))